

울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올린다

3년간 매년 / 당 10원씩 ↑ 기초단체별 최대 14억 효과 주민 부담률 39% → 64%

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지만,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남·동·북구와 울주군 등 모든 기초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인상을 추진한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 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 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은 / 당 36원에서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배출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현재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지난해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구·군 재정으로 부담한다.

즉 전체 배출 수수료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40%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지난해 중구 33억9000만원, 남구 48억6000만원, 동구 24억6000만원, 북구 33억5000만원, 울주군 36억1000만원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총 177억원 중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한 셈이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 조치로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8억6000만원, 남구 14억6000만원, 동구 5억6000만원, 북구 7억9000만원, 울주군 6억2000만원 정도 재정 지출을 각각 줄이게 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고, 복지비용과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매칭 비용 등이 늘어난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적자 감소는 말라붙은 지자체 재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울산=최인탁 기자 remark@metroseoul.co.kr

휴게소 도로점용 허가 논란... 사고 위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감속 구간 짧아 안전 위험 우려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선 곤명면 옛 다솔사역 앞에서 진주까지는 4차선으로 뚫려있어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하비산 원전교 주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휴게소를 짓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동차 출입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경계지점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설치해 사용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9일 진주사무소에 따르면 사업주가 2017년 12월 19일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휴게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출입로로 감속차선 55m, 가속주행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

차로 길이 85m와 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임야 법면을 대상으로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아직 준공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

문제는 휴게소 예정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감속하는 구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휴게소에서 나온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기까지 가속구간도 너무 짧아, 향후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 도로 편도 2차선에서 속도

가 빠른 차가 오른쪽 차선 진입 방향지시등 신호가 없을 경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편도 2차선 감속차선 옆 법면 지역인 산지 경사가 안정성 없이 심하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목 전문가는 "입구 감속차선과 가속 차선 구간이 짧게 설계됐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진주(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

담양군, 창업·주거 등 혁신거점공간 조성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54억 확보

담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담양읍 담주리 일대 구도심지역에 '문화생태로 새로운 천년을 디자인하다'의 슬로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구도심지역 14만4400㎡의 면적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할 사업은 노후주거지 집수리사업, 마을 공영주차장조성, 문

화예술 거점조성, 생태문화광장 조성, 어울림센터 조성, 해동문화예술촌과 연계한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담양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평택시,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국비 75억원 확보

실시간 감시로 오염된 물 자동 배출 2020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

평택 시민들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시는 9일 수돗물 수질사고 예방과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75억원의 국비를 확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45억원을 확보해 총 6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관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수질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감시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 자동 배출 ▲유량 및 수압 감

시시스템 설치 등, 원수부터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건강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량·수압·수질(탁도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 탁수 유입 등 수질 이상 시 경보 발령과 함께 오염된 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누수와 같은 사고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홈페이지·수질 전광판·스마트폰 앱을 활용, 언제든 수질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

업'도 추진한다.

올해 13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25.7km를 교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9km를 교체할 계획으로, 2020년 교체사업비 230억원 중 국비 30억원을 포함 60억원을 확보했다.

미확보된 170억원은 국비 지원요청 등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에 대한 파손과 수질 안정성 우려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오늘의 날씨

10월 10일 (목)

음력 : 9월 12일

수도권 날씨

12~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곡성군이 토란 명품화와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섰다.

/곡성군청

곡성토란 명품화·신규 수요 창출 나선다

곡성토란이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토란 명품화와 신규 수요 시장 창출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 토란 재배 면적은 약 100ha로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나 토양이 토란 재배에 적합해 면적 대비 생산량이 높아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곡성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토란을

생산하기 위해 논에서 윤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토란을 재배하고 있어 국내 타 생산지와 구별된다. 여기에 섬진강과 보성강이 둘러싸고 있어 고온다습하고 일교차가 커 다른 지역에 비해 토란이 단단하고 고소하다.

군은 지역특산물인 토란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토란 절대 우위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토란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완료 전국 생산량 약 70% 차지

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곡성군은 토란품질관리를 위해 곡성토란생산자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 토란 생산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군은 연평대에 맞는 다양한 식품군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ts7080@